



중앙승가대총장 증범 스님 법문.



눈썹바위 관음보살상 참배.



보문사 주지 성월 스님의 환영.



15번째 염주알을 받는 '환희'



해병대 제2사단 장병들의 '마음'



MBC '화제집중' 촬영.

# 관음 · 보현 보살님 자비 실천 따르고 또 따르리!

## 강화 보문사로 떠난 15번째 기도회

#승가교육 현장에서 출발 "감동과 보람" 108산사를 찾아 108배하며 108번뇌를 소멸하고 108염주를 만들어 가는 인연공덕을 쌓는 아름다운 수행모임. 선묵해자 스님과 함께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순례 기도회의 열다섯 번째 염주는 강화 보문사에서 깨어졌다.

11월 22일 108산사 순례 기도회 회원들은 잔잔한 감동으로 열다섯 번째 순례를 시작했다. 김포 중앙승가대에서 여정의 첫발을 댄 것이다. 오전 7시 30분 중앙승가대 본관은 108산사 순례 기도회 회원 3000여명으로 가득 찼다. 조계종 승가교육의 산실인 중앙승가대에 불자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은 처음 있는 일. 108산사 순례 기도회 회원들은 질서정연하게 4층 대강당에서 학교 소개를 받고 총장 증범 스님의 법문을 경청했다.

"108산사 순례 기도회의 정진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번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학교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담 큰스님의 원력과 수행 정진력을 받들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고자 108산사를 찾아 기도 정진하는 여러분들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길 기원 드립니다. 중앙승가대학의 교육은 시대를 이끌고 역사를 열어가는 선지식을 기르는 일입니다. 학사와 관련한 모든 일은 바로 승가교육의 '마중물'입니다. 108산사 순례 기도회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이 미래의 선지식을 탄생시키는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기도처가 아닌 교육기관, 그것도 스님들을 위한 교육기관에서 순례의 첫발을 댄 회원들은 "팔로만 들린 중앙승가대

학을 와 본 것만으로도 감동적인데 학교의 의미와 승가교육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 더욱 보람 있다"고 입을 모았다.

### #강화도 외포리 갈매기와 '새우강 인연'

강화 보문사가 위치한 석모도로 가는 길목, 바다를 건너야 한다. 외포리에서 배를 타고 5분. 이 싱거운 뱃길도 108산사 순례 기도회 회원들에게는 또 다른 즐거움이었다. 외포리와 석모도를 오가는 배는 대형버스를 열두 대씩 싣고 미끄러지듯 바닷물을 갈랐다. 배가 출발하기 무섭게 수백 마리의 갈매기 떼가 108산사 순례 기도회 회원들을 향해 날개짓을 하고 회원들은 준비한 새우강을 던져 주었다. 공중에서 새우강을 날름날름 받아먹는 갈매기들의 사냥 솜씨에 감탄하며 즐거워했다. 그렇게 새우강으로 만난 갈매기지만 회원들은 "다음 생애는 더 좋은 몸으로 태어나 성불하라"고 기원했다. 108산사 순례 기도회 회원들은 이제 인연과 공덕이라는 두 단어가 몸에 배었다. 늘 새로운 인연을 만나면 그 인연에 감사하고 그 인연을 성불의 공덕으로 회향하는 마음이 순례를 거듭할수록 견고해지는 것이다.

108산사 순례 기도회 회주 해자 스님이 늘 강조하는 가르침이 바로 인연과 공덕을 몸에 배이도록 하라는 것이다. 108산사 순례 기도회가 순례 때마다 빠뜨리지 않는 군부대 초코파이 보시와 농촌사랑 직거래장터, 환경운동 등이 모두 관세음보살과 보현보살의 마음으로 성불의 인연공덕을 지어가려는 실천행인 것이다.

### #관음진신 상주도량, 눈썹바위에서 환희를



108산사 순례기도회의 15번째 법회가 강화 보문사에서 봉행됐다.

보문사 극락보전 앞마당에 분홍 연꽃이 3000송이 피었다. 분홍색 조끼를 입은 108산사 순례 기도회 회원들이 질서정연하게 앉아 기도를 시작하면서 연꽃은 향기를 뿜기 시작했고 그 향기는 낙가산을 뒤덮었다. <천수경> 독경과 108참회 그리고 힘차게 석가모니불 정근, 환영사와 법문으로 이어지는 세 시간 동안 108산사 순례 기도회 회원들의 기도열기는 종각 옆 감나무에 주렁주렁 달린 열 익은 감들을 완전히 익혀버리

는 듯했다. 보문사 주지 성월 스님은 "민족정신의 수호처이고 관음보살의 진신이 상주하는 도량인 보문사 성지를 21세기 한국불교 신행문화의 새 장을 열고 있는 108산사 순례 기도회가 방문하여 국민의 안녕과 국가의 발전을 기원하는 기도를 하신다니 온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인덕수 강화군수도 "108산사 순례 기도회 회원들의 농촌 사랑하는 마음에 감탄했다"며 원만한 기도 회향을 염원했

다. 초코파이 보시를 받은 해병대 제2사단 이경한 군법사는 "어머니 아버지의 따뜻한 정성이 깃든 선물에 감사 드린다"고 인사했다. 108산사 기도회의 영원한 간판스타 머루씨와 홍보대사 장미화씨의 선창에 따라 '108산사의 노래'를 신명나게 부르며 기도 법회가 끝났다.

회원들은 눈썹바위 아래 관세음보살님을 참배하며 개인의 소원을 빌고 국운 융창과 인류 평화를 기원했다. 기도 동참 낙관과 염주알을 받아든 회원들은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강화 순무 약속 등 특산품을 구입해 바깥에 놓으며 열다섯 번째의 순례를 여기고 귀갓길에 올랐다.

이날 순례 기도회법의 모든 일정은 MBC의 '화제집중'이 취재했다. 방송은 11월 26일 오후 5시 30분.

강화/글·사진=임연태 기자

협찬 : 108산사순례기도회



# 대한불교화엄조계종 창종 대법회



## 모시는 말씀

귀의 삼보하옵고 존경하는 대한불교화엄조계종 종도 및 사부대중 여러분 광대무변한 불법 광명과 제불보살님의 대자비심으로 불은의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본 종단은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말씀에 따라 생활속에 불법을 널리 흥포하고 불국정토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창종의 기치를 세웠습니다.

특히 종도들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종단도 맑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국불교계의 새로운 종단 역사를 쓰고자 합니다.

이에 창종대법회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전국 대덕 스님 및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는 바입니다.

- 일시 : 불기 2551년 서기 2007년 12월 14일 11시
- 장소 :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 2동 529번지 쌍청웨딩홀
- 문의 : 창종주 054)632-2799 / 011-228-7813  
총 무 031)883-1506~7 / 011-338-1521

총본산 : 경북 영주시 안정면 봉암리 428번지 봉황사

창종주 : 혜상  
창종위원회위원 : 관도 혜명 금담 혜광 법광 수암 지공 벽암  
증명 : 각 종단 증명 예하



- 교통편 (쌍청웨딩홀 방향)
- 시내버스노선 대전역 : 221, 720, 726, 829 고속터미널 : 640, 103(좌석) 판암주공5단지 하차 : 829 판암주공4단지 하차 : 720, 726, 221, 103(좌석) 판암근린공원 하차 : 640, 221, 720
- 지하철이용 판암역 3번 출구에서 도보5분거리
- 고속도로(판암 IC에서 2분거리) 서울 - 청원 - 신안 - 대전 - 판암(C진입) 호남 - 광주 - 논산 - 계룡 - 서대전(남부순환도로) - 무주, 진주지역 대전고속도로 이용 판암 IC진입
- ※ 대전역을 이용하실분은 동광장을 이용하세요. 쌍청웨딩홀 041271-1908

## 대한불교화엄조계종 개인 사찰 보호 특별법 중에서 -

제조, 개인 사찰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본종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종교인증서	사찰인증서
본 종단은 공법 공적 목적에 따라 조지 및 공적의 운영에 있어 종단에 관여하지 않으며 종단 내 재산 등 일체 관리에 관하여 종단 운영에 관여하지 않으며, 종단 내 사찰은 본종에 관여하지 않으며 종단 운영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본 종단은 공법 공적 목적에 따라 조지 및 공적의 운영에 있어 종단에 관여하지 않으며 종단 내 재산 등 일체 관리에 관하여 종단 운영에 관여하지 않으며, 종단 내 사찰은 본종에 관여하지 않으며 종단 운영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본 종 단 장	본 종 단 장